

도서관 건축 유감

글_이우정(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관장)

저는 지난해 6월에 개관한 서울시의 한 도서관의 관장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다른 공공도서관과 비교해볼 때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잘 지은 건축물이 주변의 숲과 어우러져 주민들에게는 '가보고 싶은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말이면 도시락 싸들고 도서관에 놀러오는 가족들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잘 지은 공공 건축물 하나로 인해 주민들이 행복해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세금이 잘 쓰여 졌는지를 보려면 그 지역의 도서관에 가 보라'고 말입니다. 그 덕분에 다른 자치구에서 신축 도서관 설계를 수주해 놓은 건축사무소와 내년에 도서관 개관을 준비 중인 관계 공무원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객들이 쏟아내는 질문과 고민을 들으면서 순간 안타깝고 때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정책 관계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살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이 꿈꾸는 집의 기능들을 설계에 반영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내부 디자인도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반영시키려고 전문가에게 단단히 일러둘 것입니다. 하물며 개인의 집도 그러하거늘,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십만 명이 사용하는 공공도서관을 지으면서 정작 집주인(사서와 주민)은 집 내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른다면 이거야말로 민주사회의 블랙코미디아닙니까?

우리 도서관을 방문했던 건축사와 관계 공무원들 사이에서 사서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안타까웠던 까닭이고, 도서관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질문만 해 대니까 급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이유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마다 준비 중인 신축 도서관들의 프로세서를 보면 일단, 설계공모 등을 통해 멧있는 조감도 하나를 먼저 결정합니다. 도서관의 외관은 나름대로 선진 건축물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

서관을 어떤 콘셉트로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서'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절차에 따라 건축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없는 그들이 가볼만한 도서관 몇 군데를 돌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몇 장의 사진으로 남겨둡니다. 어릴 적에 시험 공부하러 갔던 도서관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오버랩되면서 신축 도서관의 내부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도서관 건물이 완공할 즈음에 가서야 운영주체인 도서관 사서직을 선발, 채용합니다. 이렇게 선발된 사서들이 드디어 신축도서관에 입성(?)하고 보면 아뿔싸! 어린이 도서실의 계단 난간은 왜 이렇게 위험한지, 엄마들이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 책 읽어 줄 수 있는 온돌방은 왜 안 만들었는지, 책을 정리할 수 있는 작업 공간과 직원들의 공간은 왜 이리 협소한지, 서가 사이의 조명은 또 왜 이리 어두운지, 주민들이 모여 책 읽고 토론할 수 있는 방은 왜 없는지 등등 고칠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설계 따로, 운영주체 따로, 행정 따로... 모두가 따로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병원을 지을 때 의사와 간호사의 의견이 배제된 채 병상 수만 고려해서 안 되듯이, 문화예술 건물을 지으면서 실제 사용자인 문화예술인을 배제해서는 안 되듯이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서비스의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디자인해야 창의적 공간이 될 것 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책의 하중과 열람석 수만 계산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뉴욕시나 일본의 우라야스 같은 도서관 명소를 보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대한민국의 건축사와 공무원들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드는 현재의 도서관 건축 프로세서 즉, 설계와 시공이 모두 끝난 뒤에 운영주체인 사서에게 열쇠만 넘기는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필자】**



찰칫, 도서관 풍경

앙골라를 아시나요?

아프리카 남서부에 위치한 앙골라의 정식 명칭은 앙골라 공화국(Republic of Angola)입니다. 1482년 포르투갈의 항해자가 콩고강 하구를 발견한 이래 17~19세기에 포르투갈 노예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1994년에 외교 관계를 맺었지요. 앙골라의 국기와 국가문장이 무엇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앙골라 어린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앙골라의 풍경이 담긴 사진과 민속의상, 앙골라 사람들이 즐겨듣는 음악도 들을 수 있는 도서관 전시회에 나들이 오세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앙골라, 미래의 나라' 전시회장. 10월 31일까지.)

글_송보경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도서관 소식

1. 제 44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2007년 10월 10일(수)~12일(금)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JEJU)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www.iccjeju.co.kr)에서 '오늘보다 더 거대한 세계 속의 도서관'을 주제로 개최된다.

문의 : 한국도서관협회(전화 02-535-4868, 팩스 0303-0535-5616, http://www.kla.kr)

2. 2007년도 '독서대학' 안내

문화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는 '독서대학'이 광주·전남(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 대전·충남(대전한밭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주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대학은 "자아성장을 위한 체험형 독서대학"을 주제로 10월 2일~12월 13일(10주)까지 체험형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문의 : 광주무등도서관 (전화 : 062-264-9857, 팩스 : 062-264-8802) 